

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말씀

새로운 학기, 새로운 학교, 새로운 환경 앞에 서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. “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?”, “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?”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. 누군가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, 누군가는 남몰래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.

모세가 죽은 뒤,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. 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고,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.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“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”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“강하고 담대하라.”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미 강해서가 아니라,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의 근거를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. “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.”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,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. 담대함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.

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,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. 성적, 관계, 진로, 미래 앞에서 흔들릴 때 “강하고 담대하라”고 말씀하십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“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”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,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?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

예 배 순 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여호수아 1:1~9절 다 같 이

설 교 강하고 담대하라.
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★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여호와께 돌아가자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“강하고 담대하라”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.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,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.

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“강하고 담대하라”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
2. 지금 내 삶에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,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?